

LCWR
2025 연총 - 조지아 주, 애틀랜타
시모나 브람빌라 수녀 Sr. Simona Brambilla, MC

*다음 원고는 시모나 수녀님이 LCWR에 보내준 것이고,
수녀님은 이 원고를 바탕으로 발췌하여 강연하셨습니다.*

1. 들어가며

시노달리타스에 관한 시노드 최종 문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합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복음적 권고의 길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하여 관상과 다양한 형태로 하느님을 섬기는 데에 자신을 봉헌한 남녀의 삶 안에 작용하시는 성령의 활동을 인정해 왔다. 축성 생활은 고유한 예언자적 목소리로 교회와 사회에 도전을 제기하라는 요청을 받는다. 오랜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수도 가족들은 개별 은총들과 공동 사명을 조화시키는 법을 익혀 나가면서 시노달리타스 삶과 공동체 식별의 숙련된 실천을 발전시켜 왔다. 축성 생활회, 사도 생활단, 재속 수도회는 협회, 운동 단체, 신생 공동체들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시노달리타스가 성장하는 데에 특별한 공헌을 하고 있다. 오늘날 많은 축성 생활 공동체는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예언자적 역할을 하는 상호문화의 실험실이다.”¹

최종 문서의 이 항은 이미 축성생활이 어떻게 변화를 이루는 희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통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언직, 시노달리타스, 공동 식별, 개인의 은사와 공동 사명의 조화, 상호문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축성생활 안에 있는 희망의 길들을 함께 다시 찾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개념보다는 연상을 더 도와주는 레지스터를 사용하여, 이미지와 성경 장면 그리고 존재 아이콘(주: 삶으로 증거한 모습)으로부터 영감을 끌어내면서 이들 요소 중 일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 달의 시간

선교사로서, 선교는 씨를 뿌리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사람들과 백성들 사이에 성장케하시는 생명을 수확하는 것임을 확신하기에, 모잠비크 마쿠아 부족의 몇 가지 잠언에서 영감을 끌어내며 이 숙고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느님은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는 태양과 같지 않고, 오히려 별들과 함께 운행하는 달과 같다. 달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우리는 별들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마쿠아 부족에게 달은 겸손한 별로 밤을 비추고 밤을 매혹적이고도 신비롭게 해줍니다. 부족의 민속 지혜에 따르면, 태양이 하늘에서 눈부시게 빛나면서 낮 동안 다른 모든 별빛을 사라지게 하는 반면, 달은 밤 하늘의 별과 행성들의 빛과 더불어 살고자 합니다. 마쿠아 족에게, 태양은 낮의 유일한 왕이자 주인으로 혼자 여행하지만, 달은 친밀함과 특별함을 드러내는 시간인 밤에 볼 수 있는 나눔과 친교의 지평에 거하면서 여럿이 함께 여행합니다.

태양이 뜨면, 별들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달은 밤에 빛을 내고, 별빛을 반사하면서, 별들의 광휘를 더 높여줍니다. 태양은 너무 밝아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달은 쳐다볼 수 있고, 사람들은 별이 빛나는 하늘의 장관을 즐기고 그 은은한 빛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마쿠아 족의 지혜가 말하는 별이 빛나는 밤의 이미지는 사명을 살고 이해하는 여러 방식과 다양한 사고와 운동과 주체 등의 특징을 지닌 현대의 사회적 맥락과 교회적 맥락을 반영한다고 볼 수

¹ 세계주교시노드 제 16 차 정기총회,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사명, 2024 년 10 월 26 일, no. 65. (앞으로 약자 DF 로 사용).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별들이 거하는 이러한 우주의 춤 속에서, 우리 축성된 남녀는 우리의 가장 깊은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되살펴보고 회심의 여정을 나아가도록 도전 받고 있음을 느낍니다. 시노달리타스에 관한 시노드의 최종 문서는 회심, 마음과 관계와 과정과 유대의 회심을 시노드를 관통하는 공통 분모로 규정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마쿠아 잠언에 나오는 태양과 같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빛”-다른 별들의 빛을 사라지게 하는 눈부신 광휘, 빛나는 자기 만족-을 갖대로 삼아 복음의 효과를 가늠하려는 유혹에 자주 떨어졌음을 깨닫습니다. 감소하는 숫자와 고령화하는 회원들로 말미암아 알아차리게 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에 대한 날카로운 의식과 더불어, 오늘날의 다채로운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달”이 자기 자리를 기쁘게 찾아가는 시노드적 현존을 받아들이도록 촉구합니다. 바로 다른 별들과 행성들과 함께 우리의 시간인 밤의 창공을 비추도록 부름 받은 겸손한 별로서의 현존입니다.

시노드 정기총회 2 회기 *의안집*은 다음과 같이 달의 이미지를 아름답게 연상시켜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빛은 그리스도이시다”(교회 헌장 1 항). 이 빛은 교회의 얼굴에서 빛난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사와 같다. 교회는 곧 하느님과 이루는 깊은 결합과 온 인류가 이루는 일치의 표징이며 도구이다”(교회 헌장 1 항). 교회는 달과 마찬가지로 반사되는 빛으로 빛난다. 그러하기에 교회는 자신의 사명을 자기 중심으로 이해할 수 없고, 오히려 온 인류의 일치에 봉사하는 유대와 관계와 친교의 성사가 되어야 할 책임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참여의 위기, 우리가 공동 운명을 지닌 존재라는 인식의 부재, 그리고 너무나도 개인주의적인 행복과 구원에 대한 인식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이러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러한 사명을 살아가면서 교회는 구원으로 모든 인류를 당신과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하느님의 계획을 전달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자신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2 코린 4,5) 선포하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사로서의’(교회 헌장 1 항 참조)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릴 것이고 그리하여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를 잃어버릴 것이다.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교회는 세상 안에서 하느님 나라의 성사이다.²

“밤일지라도... 솟아 흐르는 샘에서 물을 마시기”는 2010년 UISG 총회 주제였습니다. 사실, 우리의 시간은 밤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태양은 지고 달의 시간입니다. 참 빛이 반사된 빛을 생기게 합니다. 현실의 윤곽이 크게 눈에 띄지 않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서 또 우리 가운데서 잠자는 유령이 깨어나 수천 개의 질문과 불확실성과 두려움의 형태를 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 끝날 것인가?

밤시간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창의력을 발휘하는 최상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달이 조심스럽게 비추는 은은한 빛은 자유의 공간을 마련하여 추구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눈으로 볼 뿐 아니라 상상하고 느끼며 직관하도록 해줍니다. 달은 내적 비전을 회복시켜줍니다. 달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끌려 주고, 꿈 꾸는 시간으로, 친밀감의 시간으로 또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는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생명과 죽음의 시간, 잉태와 탄생의 시간, 희망과 기대와 변모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도전을 매일 피부로 느낍니다. 이 밤시간의 표징을 읽고 복음에 따라 해석하도록 하는 도전을.

이 시간은 “우리의 시간”입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고독한 태양의 시간이 아니라 겸손하고 공동체적인 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이해하고 복음이 아닌 모든 것의 덧없는 빛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우리의 내적 비전을 회복하도록 부름 받는 밤입니다. 우리의 축성이 지닌 진정한 가치를 재발견해야 하는 필요성을 깊이 감지하는 밤입니다. 개인으로서 여러 공동체로서, 수도회로서, 또 축성생활로서, 우리가 자신 안에서, 때로는 아주 고통스러운 방식이지만, 우리 성소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강렬한 핵심으로 이해되는 “중심으로 돌아가라”는 부르심을 느끼는 밤입니다.

² 세계주교시노드 제 16 차 정기총회, 어떻게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며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2024년 10월, no. 4.

이 시간은 우리의 시간입니다. 산고의 밤 시간, 어쩔 수 없이 작고 무방비 상태의 새로운 생명 탄생의 전주가 되는 시간으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밤입니다. 복된 밤입니다. 대림의 밤. 부활의 밤. 재탄생의 밤입니다.

3. 예언직의 시간

시메온과 한나(루카 2: 22-38)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23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24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25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26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뵈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 주셨다. 27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28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29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30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31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32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33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34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35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뚫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36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프누엘의 딸로서 아세르지와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일곱 해를 살고서는, 37 여든네 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38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아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시메온과 한나는 변모를 가져오는 희망의 또 다른 차원을 보여줍니다. 바로 예언직의 차원입니다. 성경에서 예언자는,

하느님의 *최고로 뛰어난* 초월적이고 인격적인 메신저입니다. 예언자를 지칭하는데 사용된 용어는 다양합니다. 예언자를 지칭하는 말로 *nabi*가 315 차례 사용되는데, 이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로, 그래서 그의 삶에 하느님이 개입하여 움직여졌다는 뜻입니다. 그들 중 하나인 아모스 예언자(기원 전 8 세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다. 나는 그저 가축을 키우고 돌무화과나무를 가꾸는 사람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양 떼를 몰고 가는 나를 붙잡으셨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아모 7:14-15) 또 다른 정의는 “하느님의 사람”으로 76 차례 거듭 나왔으며, 특별히 엘리야와 엘리사의 경우, 엄격한 의미에서 첫 예언자로 그들의 저술은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지 않습니다. 단지 열왕기에 수집 기록된 전기 이야기만 전해집니다. 그리고 비전을 보는 사람이라는 뜻의 *hōzeh* 가 16 차례 사용되는데, 이는 “보는 자”라는 *ro'eh* (11 차례 사용)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는 바는 그 속에 하느님의 메시지를 드러내는 초월적 비전이라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70 인역으로 알려진 고대 그리스어 성경과 신약성경은 그리스어 *profétés* 를 채택하였고, “말하다”는 동사 *femi*와 전치사 *pró*를 담고 있는데, 이는 예언직을 정의하는 세 가지 유용한 의미, 즉 “~ 대신에, 전에, 앞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중요합니다. 예언자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예언자는 백성에게 하느님의 대변자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러한 역할 때문에, 예언자는 현재의 사람이지만 미지의 미래를 예언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언자는 역사와 사회와 그가 살던 시대의 드라마에 함께합니다.”³

시메온과 한나: 예수님의 성전 봉헌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로, 루카 복음서에서 빛의 스파크처럼 등장하였다가, 마치 마태오 복음서에서 베들레헴으로 동방박사를 인도하는 별처럼, 곧바로 사라집니다. 따스하고 부드러운 그 빛의 자취를 따라가 봅시다.

복음서 장면은 여러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이어집니다. 기다림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는 시메온을 통해 성령께 대한 사랑에 찬 주의와 깨어 경계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성령은 시메온에게 손길을 건네고, 그 안에 거주하며 그를 움직입니다. 그의 몸과 정신과 마음, 즉 그의 외부와 내부 감각을 움직이고, 이 감각들은 열려있고, 깨어 있으며, 사랑에 찬 갈망으로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시메온에 대한 강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기다림에 충실할 때 *감각이 날카로워짐*을 배웁니다. 게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정확하게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감각을 일깨워줍니다. 오늘날까지 성령을 부르기 위해 사용하는 전통 성가인 *오소서 성령이여 Veni Creator Spiritus* 를 통해 우리는 ‘*Accende lumen sensibus,*’ (*당신의 복된 빛으로 우리 마음을 인도하십시오*), 우리 감각을 일깨워 달라고 청합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영혼의 감각을 날카롭게 할 수 있습니다.”⁴

“이 장면의 주인공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시메온의 마음을 하느님을 향한 갈망으로 타오르게 합니다. 성령은 마음속에 기대를 살아있게 합니다: 성령은 그에게 성전에 가도록 재촉하고 비록 가련한 아기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메시아를 그의 눈으로 알아볼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느님의 현존과 활동을 위대한 일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힘의 과시가 아닌 비천하고 연약함 가운데서 분별할 수 있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십자가에서도 비천함과 연약함, 그러나 또한 극적인 것: 하느님의 힘을 발견합니다. (...)

우리의 눈은 무엇을 보는가? 성령에게 이끌린 시메온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30 절). 이것은 믿음의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것은 눈을 뜨게 하고, 시선을 바꾸고, 관점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많은 만남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자비로운 시선에서 믿음이 생겨나고, 그 시선은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상처를 치유해주며, 우리 자신과 세상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줍니다. 우리 자신, 다른 이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 심지어 가장 고통스러운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게 합니다. 이 시선은 순진한 것이 아니라 지적인 것입니다. 순진한 시선은 현실을 도피하고 문제들을 보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지적인 시선은 “안을 들여다보고”, “저 너머”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겉모습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의 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도 하느님의 현존을 분별하는 시선입니다. 연로한 시메온의 눈은 세월이 흘러 흐려졌을지라도 주님을 봅니다. 그들은 구원을 봅니다.”⁵

한나는 여성이자 과부이며 연로한-권력이나 위엄이 없는 연약한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여 예언자로 부름받았고 예언은 한나의 연약함을 통해 나옵니다. 한나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힘을 입어 변모된 나약하고 연로한 인물인 엘리사벳이나 나오미 같은 성경 속의 여성을 상기시켜줍니다.

한나는 성전을 떠나는 일이 없었다; 한나는 하느님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성전에 살았던 것입니다. 한나는 하느님과의 친교에 머물면서, 현실을 그분의 관점에서 보고 읽고 해석했습니다.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한나는 단식합니다. 한나는 하느님이 아니거나 하느님의 것이 아닌 모든 것으로부터 단식하였습니다. 여 예언자 한나는 하느님으로부터 자양분을

³ G. RAVASI, *NABI’: 예언자*, <https://www.famigliacristiana.it/blogpost/nabi-profeta.aspx>, 2021년 8월 26일.

⁴ 프란치스코, *일반 알현*, 바오로 6 세 홀, 2022년 3월 30일.

⁵ 프란치스코, 26 회 세계축성생활의 날 주님 봉헌 축일 미사 강론, 성 베드로 대성당, 2022년 2월 2일.

취했습니다. 이러한 친밀하고 중요한 관계의 자리에서 한나는 현실을 하느님의 시선으로 이해하는 법을 배워 익혀, 구속과 생명과 구원의 표징을 나약해 보이는 순간에 알아차렸습니다.

2024년 2월 2일 28차 세계축성생활의날인 주님 봉헌 축일 미사에서, 교황님은 강론을 통해 시메온과 한나를 다시 상기시켜주었습니다.

인내롭게 기다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항구하게 기도에 전념한 이 두 어르신을 바라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영원한 불꽃처럼 깨어 있었습니다. 연로하였지만 마음은 젊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지치지 않고 기대에 찬 마음으로 시선을 하느님께 두었습니다(시편 145: 15 참조). 언제나 기대하며 하느님께 시선을 두었습니다. 삶의 여정에 역경과 실망도 겪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희망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 아기를 사랑에 찬 시선으로 깊이 바라보았을 때, 때가 왔음을,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이 찾고 갈망하던 분, 민족의 메시아가 도래한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 있음으로써, 그들은 그분이 새롭게 오심에도 그분을 환영할 수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느님을 기다림*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중요합니다. 매일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예상치 않은 방법으로 당신을 드러내시고, 생명과 시간이 다한 때에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깨어 있도록, 잠들지 않은 채 기도에 항구하도록 권고하십니다. 사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우리의 영이 졸도록” 두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이 잠에 떨어지고 우리 영혼이 마비되며 희망을 실망과 포기의 어둔 구석에 가둬두는 것입니다.

축성된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생각하며 선물인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다릴 수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 자신에 사로잡혀 있거나 일이나 일상의 긴장된 리듬에 지나치게 사로잡혀 항상 오시는 하느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는 없습니까? 우리가 한 업적에 지나치게 도취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수도생활이나 신자 생활마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될 위험, 매일 주님 찾기를 소홀히 하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때때로, 기쁘고 겸손하게, 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은 채 씨를 뿌리는 이들과 하느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알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사람들이 지닌 인내로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씨앗을 가꾸기 보다, 성공 확률을 계산하여 개인과 공동체 생활을 계획하는 위험에 빠지지 않는습니까?⁶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에 차 깨어 기다리는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하느님이 거하시지는 미미함에서 오는 겸손한 예언직을 우리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시메온과 한나의 시선 같은 시선을 우리에게 주시어 경이로움과 감동으로 가난하고 연약하며 약한 표징을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 사랑이 지닌 가장 겸손하고 기쁨 있으며 강하고도 부드러운 힘을 알아차리도록 해주십시오. 마치 어머니 품에 안긴 아기나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결실을 맺는 밀알, 혹은 모든 생명을 위해 부서지는 빵과 같은 표징을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사랑의 힘을 알아차리도록.

4. 숯불

시노드 총회의 2차 회기 작업에 사용하여 최종문서의 배경이 되어준 성서 구절은 ‘부활 후 고기 잡이’(요한 21: 1-14)로 총회 시작 피정에서 또 총회 과정 중 티머시 래드클리프 신부님이 통찰력 있게 또 생생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이 장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래아 호수에서 세 번째 이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장면입니다. 이 구절은 이미지가 풍요롭습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의 장면, 아주 단순하지만 강렬하게 우리를 또 다른 희망의 길로 인도해주는 장면에 머물고자 합니다.

그들이 물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물으로 끌어 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백천세 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⁶ 프란치스코, 28회 세계축성생활의날 주님 봉헌 축일 강론. 성 베드로 대성당, 2024년 2월 2일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요한 21:9-14)

물고기는 성경에서 즐겨 사용되는 강력하고 역동적인 이미지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이미지를 여러 연설에서 심화합니다. 그 중 하나로, 프란치스코 교황은 위에 인용한 복음 구절에 나오는 타고 있는 숯불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배에서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조심스럽게 끌어올릴 때, 예수님이 호숫가에 피운 작은 불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기쁨으로 가득 차 물에 뛰어들어 먼저 도착했습니다(7 절 참조). 숯불은 조용하고도 부드럽지만 오래 지속되어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호숫가에서 익숙한 장면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제자들은 놀라워하고 감동하며 주님 가까이에 있음을 맞습니다.”⁷

숯불은 가족의 또 “가정”의 불입니다. 우리 사이의 애덕의 불, 형제애/자매애의 불, 강하면서 섬세한 유대가 가져오는 온기의 불로, 가슴을 불타오르게 하여 하느님 사랑과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체험하도록 마음을 열어줍니다. 축성된 남녀들에게 귀 기울일 때, 또 함께 대화를 나눌 때, 얼마나 자주 이런 종류의 유대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갈망과 필요가 생겨나는지요. 애덕과 축복과 자비와 돌봄, 섬세함과 주의와 존중으로 풍요로워지는 강력하면서 가슴으로 느껴지는 불꽃 같은 유대! 얼마나 이 숯불과 같은 불을 갈망하는지요!

요한 21:9-14 에서, 예수님은 다소 범상치 않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물고기를 구워 제자들을 위한 음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우리를 어떻게 끌어당기는지 내맡겨봅시다. 이 이미지는 단순함과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엔 깊은 의미를 전달해주고 강력한 무엇인가를 제시해줍니다.

4.1 숯불

숯에 불을 붙여 타오르게 한 후 직접 음식을 준비하는 예수님은 섬기는 권위를 훌륭하게 드러내 주는 이미지로, 형제 자매들의 성장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사람들의 이미지입니다. 권위라는 말은 라틴어 *auctoritas*에서 유래한 것으로, “성장케하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 *augere*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과 “author저자” 사이에는, 어근이 같기에,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여기서 참조가 되는 점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auctor*가 지닌 여러 의미에는 “성장시키는 자” 뿐만 아니라 “성공을 보장하는 자” 혹은 “만족스럽고 성공적인 결과로 이끄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⁸ 권위는 다른 이의 ‘성공’ 즉 인간으로서, 신자로서 또 축성된 자로서, 사랑에 부르심 받은 이들인 그들의 성장과 변영에 겸손되이 봉사하는데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2008년에 출간된 권위의 봉사와 순명에 대한 수도회 부 훈령은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축성생활에서 권위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권위이다.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⁷ 프란치스코, 새 추기경 서임과 시성 명분에 대한 투표를 위한 추기경회의에서 한 강론, 2022년 8월 27일 바티칸

⁸ FALLAI 신부, “*Authority권위*:” All the Secrets of an Ancient Word with Many Meanings 다양한 의미를 지닌 고어의 모든 비밀, 2020년 11월 20일, 참조

https://www.corriere.it/scuola/20_novembre_25/autorita-tutti-segreti-una-parola-antica-che-ha-tanti-significati-70af4e26-2cde-11eb-a006-0b5f9624cb77.shtml

그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이상에, 기도의 분위기와 겸손된 추구를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이상에 봉사하도록 부름 받았음을 인식한다. 그러기에 모든 형제 자매의 가슴속에 있는 같은 성령의 활동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권위를 행사하는 이들은 회의 카리스마를 드러내는 프로젝트를 할 때 성령께서 공동체 모든 회원들에게 부여해주는 선물(은사)을 통해 실현하고자 원하는 바를 돕고자 자신을 바칠 때 “영적”이 된다.⁹

이런 점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자는 개인의 존엄을 증진하도록 부름 받아, 공동체 각 회원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회원의 성장에 유의하며 각 회원에게 적절한 인정과 긍정적인 배려를 해주고 모두에게 진심어린 애정을 부여하며 신뢰 안에서 이루어진 비밀을 유지한다.¹⁰

시노드 총회 중에, 의사결정 과정과 교회 여러 영역의 권위 행사에서의 회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없어서는 안 될 비전을 증진하고 그 비전을 나르시스티적/성직주의적 여러 가능한 경향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며 복음에 어긋나게 이끌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기도와 형제적 대화를 통하여 우리는 사명(선교)의 길을 우리에게 가리켜 주시는 말씀께 응답하기 위하여 실천하여야 할 것은 교회적 식별, 결정 과정에 대한 관심, 그리고 자신의 일을 책임감 있게 설명하고 내려진 결정의 결과를 평가하는 노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세 가지 실천은 밀접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다. 결정 과정은 교회적 식별을 필요로 하고, 교회적 식별은 투명성과 책임감 있는 설명으로 뒷받침되며 신뢰의 분위기 안에서 하는 경향이 요구된다. 신뢰는 상호적이어야 한다. 결정을 내리는 이들은 하느님 백성을 신뢰하며 그들에게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하고, 하느님 백성도 권위를 행사하는 이들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통합적 전망은, 이 실천들 하나하나가 또 다른 실천에 달려 있고 다른 실천들을 뒷받침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의 역량에 이바지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 준다. 교회적 식별에 기초한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투명성과 책임감 있는 설명과 평가의 문화를 체득하는 데에는 기술적으로만이 아니라 그 신학적, 성서적, 영성적 토대를 탐구할 수 있는 적절한 양성이 필요하다. 증언, 사명, 성화, 봉사를 위한 이러한 양성이 세례 받은 모든 이에게 필요하고, 이를 통하여 공동 책임이 강조된다. 책임 있는 임무를 수행하거나 교회적 식별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들의 양성은 특별한 형태를 띤다.¹¹

복음적 권위는 생명의 빵 돌레에 형제자매들이 모이게 하는 신성한 불을 피우고 지키며 타오르게 할 뿐 아니라 형제자매들이 하느님 백성으로 성장하게 해주고 다양한 사람들을 섬세한 만큼 열정적으로 애덕의 유대로 일치하게 해주는 그런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합니다.

4.2 함께, 숯불 돌레에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그들을 불러 함께 먹도록 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음식을 나누는 경험을 상기시켜줍니다. 반투-마쿠아적 사고로 풍요로워진 저는 우리 수도회 혹은 공동체를 주방으로 상상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화로와 숯 돌레에 앉아 각자 얼마간의 생명의 재료를 넣어 모두를 먹일 든든한 죽을 만듭니다. 마쿠아 족 속담에 따르면, ‘죽 술은 하나지만 죽을 먹는 양은 다릅니다.’ 반투-아프리카 세계관에서는, 우리 모두 같은 ‘술’에서 나오고, 같은 ‘반죽’으로 만들어지며 같은 생명으로 성장합니다. 한 가정에서 죽을 여러 술에 나누어 끓이는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죽을 떠 먹는 술도 하나, 밀가루도 같은 것입니다. 비록

⁹ 수도회 부, 권위의 봉사와 순명. *Faciem tuam, Domine, requiram*, Instruction, Rome 2008, n.13 a.

¹⁰ 같은 책, n. 13.c.

¹¹ DF, 79-80

나누는 양은 다를지라도. 교회는, 같은 하나의 생명의 빵으로 양식을 얻기에, 이 이미지 안에서 교회의 모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전례와 기념 차원뿐 아니라 구조와 경제와 사목 실천, 그리고 생활 양식과 관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비전을 보다 사실적이고 눈에 보이게 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수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같은 술에서 밥을 먹으라는 초대를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복음적이고 카리스마적 토착화와 상호문화성은 피할 수 없는 필수조건입니다. 카리스마와 문화 사이의 대화는 단순한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기회이자 선물이며, 하느님께서 모든 민족 안에 넣어두어서, *카리스마*라는 술으로 받아들여 나머지 인류와 나누고자 하는 고유한 풍요로움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한 민족과 인간적이고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놓치면, 기꺼이 “한 술 밥을 먹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풍요롭게 하고 향상하며 변모를 가져오고 공유하도록 그 민족에게 주어진, 하느님에 대한 본래의 고유한 경험을 할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수도회에 가져올 고유하고 독창적인 재료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느님과 함께하는 여정 체험이 우리의 카리스마에 대한 이해에 어떠한 빛을 비추니까? 이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받아왔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복음화시켜 왔습니까? 카리스마의 활력에 어떤 기여를 해왔습니까?

5. “우리(WE)라는 신비”

프란치스코 교황은 “나”로부터 “우리”로 나아가라는 부르심에 대해, “작은 개별 회원의 집합보다 강한 가족으로 일치”¹²될 필요에 대해, 함께 살아감의 “신비”를 발견하여 나누는 것이 지닌 도전¹³에 대해, 또 해방을 가져오고 책임있는 방식을 통해 함께 생활하는 “신비”로 교회를 경험하는 것¹⁴에 대해 거듭 말씀했습니다. 시노드 과정은 무엇보다도 바오로 사도가 표명한 한 몸¹⁵의 이미지를 받아들여 “우리는 다양한 상황과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부족, 언어, 민족, 국가가 한데 모여 하느님 백성이 되는 “영적인 맛”(「복음의 기쁨」, 268항)을 경험하였다. 하느님 백성은 세례 받은 이들의 단순한 총합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하느님 백성은 시간 안에서 아직 순례하고 있으면서도 이미 천상 교회와 친교를 이루고 있는, 시노달리타스와 사명의 역사적 공동체적 주체이다.”¹⁶라고 합니다.

몸의 이미지에 잠시 머물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 앞에 또 다른 희망의 길을 열어주고 그 희망을 우리 회에 적용하게 해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각 수도회는 고유한 카리스마로 활기를 얻기에 마치 고유하고 특별한 생명 에너지로 생기를 얻는 하나의 몸과 같습니다. 사실 수도회, 공동체, 모든 인간 집단은 여러 면에서 여러 지체로 되어 있지만 하나의 생명으로 일치된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각 세포는 서로 뚜렷하게 구분이 되지만 그 몸을 고유하게 해주고 규명해주는 같은 DNA를 담고 있습니다.

자, 손가락 한 개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 잘라낼 생각은 하지 않지요. 대신, 그 손가락을 잘 돌봐 줍니다. 상처 난 손가락에 온 신경이 쏠립니다. 손가락을 치료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 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나머지 몸도 협력합니다. 발로 걸어서 의사를 찾던지 약국에 갑니다. 멀쩡한 손으로는 소염제와 반창고를 집어 상처에 바르고 붙입니다. 눈으로는 어디에 소염제를 바르고

¹²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FT)**, 아시시, 2020, n. 78. 이 회칙은 이 주제에 대한 여러 깊은 통찰을 제시해준다. 회칙 안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인간 가족으로, 같은 인간 육신을 지닌 길동무로, 우리 공동의 집인 같은 지구의 자녀로” 꿈꾸도록 초대하고(FT, n. 8), 공동의 집에 사는 ‘우리’가 되도록 초대(FT, n. 17) 한다. 2021년 1월 10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탈리아 tv 방송 Tg5 프로그램에서 한 인터뷰 참조. <https://www.avvenire.it/chiesa/pagine/intervista-papa-francesco-tg5>

¹³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 Rome 2013, n. 87.

¹⁴ 프란치스코, 교회대학교와 학부에 대한 교황령 **진리의 기쁨**, Rome 2017, n. 4.

¹⁵ DF, nn. 16, 21, 26, 27, 36, 57, 88 참조.

¹⁶ DF n. 17

어떻게 반창고를 붙일지 살펴봅니다. 귀로는 의사가 주의주는 말을 경청합니다... 등 등.
“모든 것은 관련되어 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모든 것이 연계된다”는 말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찬미받으소서**를 통해 계속 말씀하는 바입니다. 한 몸의 이미지는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연계성을 생생하고도 분명하게 표현해줍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인 우리, 신자인 우리, 수도회 회원인 우리는 고유하고 독창적인 카리스마로 활기를 얻습니다. 사실, 수도회는 카리스마적 몸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공유하는 인간성, 우리의 신앙, 그리스도에 소속된 존재, 우리를 형제자매가 되게 하는 같은 카리스마에 소속됨, 우리의 관계를 신성한 유대로 변화시켜주고 하나의 몸을 성장시키는 혈관으로 변화시키며 그를 통해 카리스마라는 생명의 피가 흐르게 하는 것 등 덕분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체와 마찬가지로, 모든 지체, 장기, 세포는 나머지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포 하나가 비정상적으로 되면, 암이 되어 다른 장기에 퍼질 수 있고 그 결과 전체 유기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폐가 건강하면 온 몸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하여 크고 작은 지체에 생명력을 유지해줍니다. 몸의 한 부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전체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떤 식이든, 각 지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도회 내에서 떠돌아다니는 것은 회원들이 들여온 것입니다. 우리 행동과 말, 생각과 감정은 모두 우리의 관계의 촘촘한 망을 통해 흐르는 에너지이고 궁극적으로 모두에게 영향을 줍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카리스마라는 같은 피로 양분을 받은 한 몸 안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이나 제스처 혹은 생각이나 감정도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생명의 모든 표현에는, 좋은 나쁜든, 그에 따른 결과가 생깁니다. 어느 것도, 내가 은밀하게 느끼고 생각하는 것마저, 내 마음 가장 깊숙한 한 구석에 지키고 있는 것, 혹은 아무도 모르게 말한 것마저, 어떤 것도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신비롭게도, 깊은 영적인, 카리스마적인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기에,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거나 바라는 것이 몸의 순환 속으로 들어와서 유익하거나 해롭거나 간에 그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행하고 말하는 것과 생각하고 느끼는 것 모두 나의 작은 개인 세계에 한정되지 않고 우리를 연결하여 형제자매가 되게 하는 네트워크의 흐름을 통해 흐르게 됩니다.

몸,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수도회를 동반하는 것은, 그 결실과 생산능력, 세상에 생기게 된 목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수도회에 생명을 주는 것, 즉 카리스마와 끊임없이 연결하고 또 연결하면서 수도회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생명력으로 활기찬 연결 내에서 떠돌아다니는 것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카리스마는 회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카리스마는 회의 소유가 아닙니다. 카리스마는 하느님께서 세상에 주는 선물이고, 성령이며 생명입니다. 수도회와 그에 소속된 형제자매는 모두 카리스마를 무상의 선물로 받아 자신 안에서 살아내면서 생명력이 되게 하여 우리를 통해 무상으로 또 창의적으로 흘러넘치게 해야 합니다. 박물관의 전시품처럼 방부처리하여 미라처럼 보존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모든 카리스마는 독창적입니다. 박물관에 전시된 상이 아닙니다. 카리스마는 창조적입니다. 본래의 원천에 충실하여 새로운 사회 문화 상황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것을 다시 생각하고 표현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카리스마는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현실과 대화하는 가운데 성장하는 나무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업데이트하는 일은 충실하면 할수록 모두에 대한 창의성과 지혜와 민감성과 교회에 대한 충실성을 조화롭게 함으로써 더 잘 실천됩니다.¹⁷

카리스마의 에너지는 회의 몸 안에 있는 각 세포를 통해 흐릅니다. 형제자매는 모두 카리스마를 전하는 자이면서 카리스마를 드러내는 표시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도회라는 몸은 살아있는

¹⁷ 프란치스코, 2021년 2월 6일 바티칸, 포콜라레 총회 참석자들에게 한 연설

유기체로서 자신만의 “감각,” 그 중에 “카리스마의 감각,”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을 빌리자면, 직감 혹은 “본능”을 지니고 있어서 카리스마의 향기를 구분하게 해주고, 그 멜로디를 인식하며 그 빛을 보고 맛을 보며 촉감을 알아차리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몸으로서 또 유기체로서, 그것을 접했을 때 공감하고, 끌리며 따르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착한 목자처럼, 리더가 양떼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공동체를 인도하기 위해 앞에서, 격려하고 지지하기 위해 중간에서 그리고 계속 하나가 되게 하여 아무도 뒤처지거나 너무 뒤떨어져서 따라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뒤에서 걸어갑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카리스마의 향을 맡는] “코”가 있습니다.¹⁸

유기체의 “본능”과 모든 감각이 받아들이는 것에 응답하여 유기체가 움직이고 떨리는 것은 단순히 각 지체의 움직임이나 떨림의 총합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가 심포니를 연주할 때 일어나는 것과 유사합니다. 심포니는 개별 악기의 개별 소리가 내는 총합만이 아닙니다. 더 위대한 무엇입니다. 2023년 추기경회의 동안 새 추기경들에게 한 말씀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정확하게 같은 이미지를 활용하면서 그 이미지를 시노달리타스의 현실과 연결시켰습니다.

추기경단은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닮아서 교회의 하모니와 시노달리타스를 대표하도록 초대받습니다. 제가 “시노달리타스”를 말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 주제로 시작하는 시노드 총회 첫 회기 전날에 모여 있는 탓도 있지만, 오케스트라 비유가 교회의 시노드적 성격을 잘 비추어줄 수 있을 듯하기에 그렇습니다. 심포니는 서로 다른 악기가 지닌 음색을 잘 조합할 때 멋진 연주가 됩니다. 각 악기가 때로는 홀로, 때로는 다른 악기와 함께, 때로는 전체가 앙상블을 이루어 연주합니다. 다양성은 필수적입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각 악기가 내는 소리가 공통의 설계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각 연주자는 다른 사람들이 내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자기 소리만 듣는다면 그가 내는 소리가 아무리 멋지다 하더라도 심포니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케스트라의 한 부가 다른 부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마치 그 부만 연주하는 듯, 그 부가 전부인듯 연주한다면 역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지휘자는 하나의 심포니가 연주될 때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지휘자는 누구보다도 더 잘 들어야 하고 동시에 각 연주자와 전체 오케스트라가 가장 창의적으로 충실하도록, 연주되는 작품에 충실할 뿐 아니라 창의적으로 악보에 영혼을 담을 수 있기에 고유한 방식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감을 불러일으키도록 해야 합니다.¹⁹

리더는 카리스마로, 회에 활기를 부여하는 생명력 있는 에너지로, 회를 유지시켜주는 음악으로, 회가 언제든 다시 시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살아있고 활기찬 기원으로 끊임없이 돌아가고 다시 잠기는 일을 촉진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회는 창설 영감이 지닌 다함이 없는 결실로 말미암아 지금 쇠신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가고 또 파견되는 지속적인 역동성을 통해 수도회는 식별을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즉 끊임없이 자신을 카리스마를 통해 비추어보고, 카리스마에 계속 잠기며 현재에 맞는 자격으로 사명을 계속 유지해갑니다. 그래서 카리스마의 음악이 오늘날 오케스트라를 통해 연주되면서, 지금 이곳에서 악보에 생명과 영혼이 부여됩니다. 생명력의 흐름이 상부구조나 경직된 지리학, 기하학, 혹은 춤을 막아버리고자 할 수도 있는 패턴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됩니다. 살아있는 유기체는, 그 본성 상, 항상 움직이고 적응하며 쇠신됩니다. 움직임과 적응과 쇠신이 멈추면, 죽음이 자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을 인용하면,

¹⁸ 프란치스코, 2013년 10월 4일, 아시시, 성직자, 축성생활자, 사목위원회들과 만남

¹⁹ 프란치스코, 새 추기경 서임을 위한 추기경 회의 강론, 2023년 9월 30일 바티칸.

가만히 서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부패해버립니다. 물처럼. 물이 한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모기가 와서 알을 낳고 모두 썩어버립니다. 모두가.²⁰

6. 그물을 손질하기

시노드 총회 2차 회기를 시작하면서 이루어진 피정동안, 저는 래드클리프 신부님의 “부활 고기잡이”(요한 21:1-11)에 대한 묵상과 그물에 대한 주석에 특별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신부님은 그물을 개인적이고 문화적인 다양성을 환영하는 교회의 상징으로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성령강림을 기다립니다. 그때에는 각 문화가 자신의 모국어로 말하고 모두 이해됩니다. 이는 시노드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찢어지고 나누어진 세상에 대한 우리 사명의 근간입니다.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의 전구를 청하고 그물을 손질하는 베드로의 전구를 청합니다.²¹

이후에 저는 마르코 복음 1:16-20 발췌문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래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대오를 샅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나섰다.

맞습니다. 그물은 고기를 잡기 위해 던지거나 해안으로 끌어올리는 용도로 사용될 뿐 아니라, 수선하고 손질을 해야 합니다. 티머시 래드클리프 신부님은 그물이 어떻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잘 지적해주었습니다. 그물은 빈 공간과 그 공간을 둘러싸면서 서로 연결해주는 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결 부분이 끊어지거나 너무 촘촘하면 공간이 없어지고 그물이 그물로서의 역할은 못하게 되어 아무 것도 잡지 못합니다.

그물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또 충실하게 수선해야 합니다. 수선하고 엮고 다시 짜는 것은 장인의 일입니다. 기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합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섬세하게 해야 합니다. 그물과 천을 손에 들고 있어야 합니다. 눈으로 구멍 난 곳을 찾고 연결이 찢어진 곳과 닳은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손가락으로 만져서 열고 닫고 튼튼하고 멀쩡한 연결부위를 찾아서 연결함으로써 그물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권위의 봉사를 하도록 위임받은 이는 누구나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차원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크게 믿습니다. 여러 차원에서 그물을 수선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손질하는 작업은 권위를 행사하는 이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의 길로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Dilexit nos, DN)**에서 수선(보상)이라는 이 개념에 중요성을 부여합니다.²² 다른 사람에 대한 거듭 반복된 죄가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는

²⁰ 프란치스코, 산타 마르타의 집 성당 강론, 2018년 10월 2일. <https://www.vaticannews.va/it/papa-francesco/messa-santa-marta/2018-10/papa-francesco-santa-marta-02-ottobre-angeli-bambini.html>

²¹ T. 래드클리프, 부활 고기잡이, XVI Ordinary General Assembly of the Synod of Bishops – Second Session, Meditation during Retreat, October 1, 2024.

²² 프란치스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예수 그리스도의 성심의 인간적이고 신적인 사랑에 관한 회칙, 로마, 2024년 10월 24일, 특별히 nn. 181-204 참조.

구조 속으로 공고하게 되고 결정체를 이루어 해롭고 불건전한 역동을 만들어내고 지속시키는 죄의 구조를 포함하는 수선의 형태가 있습니다(DN 183 참조).

이는 흔히 이기심과 무관심에 불과한 것을 정상적이거나 합리적인 것으로 여기는 지배적인 사고방식의 일부가 됩니다(DN 183). 이러한 소외된 사회 구조를 폭로하고 이에 저항하며 사회 안에 공동선을 회복하고 공고히 하려는 노력을 지지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은 윤리 규범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구조를 개선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회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 성심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DN 183).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보상은 없어서는 안 되고 때로는 찬탄할 만한 것이라도 그저 일련의 외적인 행위들로 이해될 수 없습니다. 힘과 추진력과 지칠 줄 모르는 창의성을 부여해 주는 의미, 곧 ‘신비’이자 영혼이 이러한 행위들에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빠져 나오는 생명과 불과 빛이 필요합니다(DN 184).

우리 세상을 위해서도 그리스도의 성심을 위해서도 그저 외적인 보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마다 자신의 죄와 그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친 여파를 생각해 본다면, 이 세상에 가해진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깊은 피해와 가장 고통스러운 상흔을 입은 상처받은 마음들을 치유하고자 하는 염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DN185).

모든 것을 다 수선할 수는 없고,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수선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수선의 과정은 재탄생, 즉 상처를 덜 아프게 하고 빛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상처의 재구성 혹은 새로운 이해를 위한 길을 닦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보상 과정의 몇 가지 단계를 강조합니다.

☞ 마음의 지향(DN 185-186 참조): 보상하고자 하는 깊은 염원, 야기된 손해를 고치되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지향, 즉 필수적이고 적절한 단계를 실행하는 것.

☞ 잘못을 인정하기, 솔직하게 형제자매들에게 끼친 해악을 인정하고 사랑이 훼손되었다는 깊이 진실된 느낌을 갖고(DN 187 참조) 이를 통해 마음이 건강하고 진실되며 정화하는 슬픔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

☞ 우리 형제자매들로부터 용서를 청하기. 용서를 청하는 것은 관계 치유의 수단입니다. 그렇게 할 때 “대화를 다시 시작하고 형제애의 유대를 다시 확립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 이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하며, 청하는 용서를 받아들일 마음을 불어넣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완전히 회복될 수 없더라도, 언제나 사랑이 다시 태어나 그 상처를 견딜 수 있게 합니다”(DN 189).

시노드 총회 2차 회기는 이틀 간의 피정으로 시작했는데, 이 피정은 참회의 밤 기도로 마쳤습니다. 참회의 밤 기도 시간에

우리의 부끄러운 죄에 대하여 용서를 청하고 세상의 죄에 희생당한 이들을 위하여 전구 기도를 올렸다. 평화를 거스르고 피조물, 토착민, 이주민, 미성년자, 여성, 가난한 이들을 해치며 경청과 친교를 저해한 우리의 죄명들을 불러 보았다. 이를 통하여 시노달리타스를

위해서는 참회와 회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²³

용서를 청하고 용서하며 용서받는 회심. 우리 안에, 우리 사이의, 그리고 우리 주변의 죄의 구조와 역동을 알아차리고 수선하려는 회심. 상처 난 마음을 손보고 우리를 형제자매로 엮어주는 네트워크와 유대를 수선하려는 회심.

교회는 성직자나 교회 직분을 맡은 이들이 가하는 성적 학대, 영적 학대, 경제적 남용, 제도적 착취, 권력 남용, 양심을 거스르는 학대의 피해자와 생존자의 목소리에 특별한 관심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경청하여야 한다. 경청은 치유, 회개, 정의, 화해를 향한 여정의 기본 요소이다. 전 세계적으로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고 사람들이 불신과 의혹 속에서 살도록 부추기는 시대에, 교회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용서를 구하며 피해자들을 돌보고 예방책을 마련하며 주님 안에서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²⁴

7. 평화의 장인들

2025년 4월 20일 부활 주일 정오. 프란치스코 교황은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 중앙 발코니에서 도시와 인류와 피조물을 축복하며 교회와 세상에 특별 강복 *Urbi et Orbi*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교황이 지상에서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이자 마지막 강복이 될 것 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 희망의 뿌리가 되는 주님 부활의 심오한 의미를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사랑이 증오를 이겼습니다. 빛이 어둠을 이겼습니다. 진리가 거짓을 이겼습니다. 용서가 복수를 이겼습니다. 악은 우리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끝까지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날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매 여러분, 형제 여러분, 특별히 고통과 근심 속에 있는 여러분,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침묵 속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모아 간직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단 한 방울도 헛되이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 안에서, 하느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몸소 짊어지시고 당신의 무한한 자비로 악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독살하고 곳곳에 폭력과 부패를 심는 악마적 교만을 뿌리째 뽑으셨습니다. 하느님의 어린양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외칩니다. “그리스도 나의 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주님 부활 대축일 부속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희망의 토대입니다. 이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희망은 더 이상 헛된 꿈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망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Spes non confundit)(로마 5,5 참조) 이 희망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온전한 헌신으로 이끌어 줍니다. 우리를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깊은 책임감을 일깨워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합니다.

하느님께 희망을 두는 이들은 자신의 연약한 손을 그분의 크고 힘찬 손 안에 맡기고, 그분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나 길을 떠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들은 희망의 순례자가 되어 사랑이신 주님의 승리와 생명이신 주님의 무장해제된 권능을 증언하는

²³ DF, 6.

²⁴ DF, 55.

이들이 됩니다.²⁵ (한국어 바티칸 뉴스, 번역 이창욱,
<https://www.vaticannews.va/ko/pope/news/2025-04/urbi-orbi.html>)

같은 메시지에서, 교황은 다시 한 번 평화를 호소하며, 전쟁과 폭력과 긴장으로 억압받는 세상의 수많은 지역을 상기시켜줍니다. 그 가운데는 이스라엘 성지와 레바논, 시리아, 예멘, 우크라이나, 남캅카스, 사헬, 남수단, 수단, 아프리카의 뿔, 콩고민주공화국, 아프리카 대호수 지역 등이 속합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2025년 5월 8일 교황 선출 직후 첫 말씀에서 평화를 위한 부르심을 언급했습니다: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느님의 양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착한 목자께서 하신 첫인사입니다. 저는 이 평화의 인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여러분의 가족과 모든 이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온 땅에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바로 이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무장 해제된 평화이며, 무장 해제하는 평화, 겸손하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느님에게서 오는 평화입니다.²⁶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축성생활이 어떻게 프란치스코 교황의 거의 유언과 같은 이 부르심을, 그리고 레오 14세 교황이 그대로 반영한 이 부르심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이 부르심이 어떻게 “도전을 주면서” “힘을 부여해주는” 희망의 길을 열어줄 수 있을까? 이것이 어떻게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무장 해제되고 무장 해제하며 겸손하고 인내하는 평화”의 표징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참으로 “희망의 순례자들, 사랑의 승리를 증거하는 자, 생명의 무장 해제하는 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참으로 “평화의 장인”이 될 수 있을까?²⁷

그 대답은 정확하게 이곳, 우리 사이에, 다가오는 하느님 나라에 있거나 어쩌면 나무가 되어 새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작은 겨자씨처럼, 빵 반죽 속에 숨겨진 누룩처럼, 지치지 않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와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 집안을 쓸며 뒤지는 여인의 끈기와 사랑처럼, 이미 현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활 후에 제자들을 만나 특별한 효과와 힘의 과시를 하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빛나는 용서의 표징이 된 상처가 주는 무장 해제시키고 놀라움을 주는 힘을 통해 당신을 보여주는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있으려는 불타오르고 존중하는 염원으로, 계속 내어주고, 충실함과 온유함으로, 반대되는 세력이 사랑을 없애거나 사랑을 재청구나 복수로 바꾸고자 할 때, 다시 일어서고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사랑으로.²⁸

전 세계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축성된 남녀들을 봅시다. 종종 인간성이 가장 상처받는 곳, 역사와 인간 존재의 깊은 곳, 주변부와 변경에서 무장 해제시키고 무장 해제하며 겸손하고 인내하는 이러한 평화의 실을 짜고 있는 이들을 봅시다. 자유롭게 자신의 생명을 바칠 뿐 아니라 자유롭게 죽음을 봉헌하고, 나약함, 취약함, 고통과 의탁의 행위를 믿을 수 없을 만큼 풍요롭고 복되게 하며, 개인으로서 또 공동체로서 육신의 삶을 살며 동시에 파스카 신비의 절정을 산 이들을

²⁵ 프란치스코, “Urbi et Orbi” 메시지, 2025년 부활, 바티칸, 2025년 4월 20일.

²⁶ 레오 14세, 첫 “Urbi et Orbi” 강복, 바티칸, 2025년 5월 8일.

²⁷ “평화의 장인”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반복적으로 사용한 표현이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1일 53차 세계평화의날 기념 메시지를 참조.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messages/peace/documents/papa-francesco_20191208_messaggio-53giornatamondiale-pace2020.html

²⁸ 파솔리니 PASOLINI, R., 다시 부활하는 법 알기 Knowing How to Rise Again, 사순 3주 강론 Third Lenten Homily for the cycle: “그리스도에 닮을 내리고. 새로운 생명의 희망에 뿌리를 내리고 바탕을 둔 Anchored in Christ. Rooted and founded in the hope of new Life,” Vatican April 4, 2025 참조.

봅시다.²⁹ 소리없이, 인내하면서, 장인의 손길로, 그들은 생명의 수호자가 됩니다. 그들은 생명을 짜고 수선하며 세상이 보다 인간적이고 측은지심의 마음을 갖도록 도와, 인내롭고 단호하게 보살핌의 문화를 건설합니다.

8. 연약한 희망의 표지

알제리. 1996년 3월 26-27일 밤. 크리스티앙 드 세르제, 브루노 르마르상, 셀레스탱 랭자르, 크리스토프 르브르통, 뤽 도쉬어, 미셸 플뢰리, 폴 파브르 미빌-아틀라스 성모 수도원의 트라피스트 수사 7명이 주도자가 알려지지 않은 납치범에 의해 납치되었습니다. 그들은 5월 하순 수도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메데아 근처에서 참수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8일 이들 티비린느 수도승들은 1994년부터 1996년 사이에 알제리에서 순교한 12명과 함께 오랑에서 시복되었습니다. 그들은 형제애의 정신으로 끝까지 굴하지 않음으로써 하느님과 땅과 백성들에 대한 충실함을 증거했습니다.³⁰ 티비린느의 수사 7명의 비극적인 죽음이 일어나기 2년 전인 1994년 7월 어느 날, 알제리의 아틀라스 성모 수도원에서 일하던 무슬림 모하메드가 크리스토프 수사에게 밭에서 감자를 수확하고자 팽이를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함께하는 노동에 대해 말했습니다. “있지요, 우리가 함께하는 노동은 우리 안에 흐르는 같은 피처럼, 우리를 함께 자라게 해줍니다.” 가장 젊은 크리스토프 수사는 이 말을 숙고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에게도 피는 무엇보다도 생명을, 소통하고 나누는 생명을 이야기한다.”³¹ 크리스티앙의 영적 증언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어느날, 아니 오늘이라도, 내가 알제리에 사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닥쳐올 것 같은 테러의 희생자가 된다면, 나는 나의 공동체와 교회와 가족이 내 생명을 이 나라를 위해 ‘바친’ 것으로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 죽음은 저를 순진한 이상주의자로 성급히 분류해버린 사람들에게 그들이 옳았다는 증거로 비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당신이 생각하던 바는 어찌 되었소?”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이제야말로 뜨겁게 타오르던 제 호기심이 풀리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야말로 제 좁은 눈길은 가이없는 아버지 하느님의 눈길 속으로 흠뻑 잠겨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와 함께 당신의 자녀 이슬람의 아이들을 아버지께서 보시듯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슬람 자녀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바라보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빛나는 얼굴로, 그리스도 수난의 열매로, 성령의 선물을 가득히 받은 모습으로 아버지께서 보시듯 그렇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서로 다른 민족, 서로 다른 종교일지언정 그 가운데서 같은 점, 유사한 점을 되찾아 친교를 이루어주시는 성령, 이는 정녕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서로 나누는 이들만이 아는 기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번역 출처: 가톨릭뉴스 지금여기(<https://www.catholicnews.co.kr>))

2006년 9월 17일 소말리아 모가디슈: 콘솔라타 선교 수녀회 소속 레오넬라 스고르바티 수녀는 자신이 일하던 어린이 병원을 나오다가 살해되었습니다. 총알 일곱 발이 수녀를 쓰러트렸습니다. 사망하기 전에, 자신을 공격한 자를 알아본 수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를 해치지 마십시오. 그는 가난한 소년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숨을 내쉬며 그리스도인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말을 했습니다. “용서, 용서, 용서를...” 레오넬라 수녀는 2018년 시복되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수녀는 티비린느 수사들의 증언과 깊이 맞닿아 있는 듯 느꼈습니다.

²⁹ 먼리 MUNLEY, A. (편집 Ed.) 여정에서 배운점들: LCWR 리더십 팀 인터뷰 - 결과, 함의, 변모하라는 지속적인 초대 Learnings from the Journey: The LCWR Leadership Team Interviews—Findings, Implications, and the Persistent Call to Transformation, 2025.

³⁰ PALERMO, A. 25년 전 납치된 티비린느 수도승들의 영적 유산, 2021년 3월 26일 바티칸 뉴스에서, <https://www.vaticannews.va/it/chiesa/news/2021-03/l-eredita-spirituale-dei-monaci-di-tibhirine-rapiti-25-anni-fa.html>.

³¹ FALASCA, S., 알제리. 티비린느 순교자들의 단순한 교훈, 2018년 11월 21일, AVVENIRE, [HTTPS://WWW.AVVENIRE.IT/AGORA/PAGINE/MARTIRI-DI-TIBHIRINE-MONACI-TRAPPISTI-SEMPLICEMENTE-CRISTIANI-LEV](https://www.avvenire.it/AGORA/PAGINE/MARTIRI-DI-TIBHIRINE-MONACI-TRAPPISTI-SEMPLICEMENTE-CRISTIANI-LEV)

2014년 부룬디 카멘지: 베르나데트, 올라 그리고 루시아-하비에르 선교사 세 명이 밤에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섬기던 백성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 까닭에 막 부룬디에 도착한, 건강이 크게 좋지 않았던 세 명의 연로한 선교사들이었습니다.”라고 파르마의 하비에르 선교수녀회 지오르다나 총장은 말했습니다.³² 2013년 10월 1일 또 다시 부룬디로 돌아가기 위해 파르마를 떠날 준비를 하던 루시아 수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예전처럼 밤낮으로 뛰어다닐 수도 없는 약하고 제한된 신체조건으로 부룬디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내적으로는 저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을 선교를 통해 구체화함으로써 그 사랑에 충실하고자 하는 갈망과 동기가 언제나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³³

이런 이들을 계속해서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티비린느의 수사들은 기도와 노동과 지역 주민들과의 형제적 나눔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고, 어떤 형태의 떠들썩함이나 권력에 물들지도 않은 채, 강인하고 겸손하며 맑은 정신으로 열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레오넬라 수녀님은 모가디슈 거리에서 다른 수녀들과 함께 살해당했을 때 여러 가지 건강 상의 문제를 겪던 66세의 수녀였습니다. 레오넬라 수녀는 여러 해 동안 소말리아의 다른 수녀들과 함께 무참한 전쟁 폭격 하에서 살았습니다. 병거나 무장 차량 등의 보호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으로, 함께 삶을 나누었던 다른 선교사들과의 연대로 맺은 자매애로, 그리고 그 백성들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베르나데트, 올라 그리고 루시아는 나이와 질병으로 아주 나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난폭하게 살해당함으로써 그들이 돌아가기로 선택한 백성들과 헤어지게 되었을 때 각각 79세, 83세, 75세였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한 증오와 폭력과 악이 그렇게 취약하고 약하며 힘없는 사람들에게-권력의 중심에 있지도 않고 눈에 띄거나 인상을 주고 승리와 명예를 추구지도 않은 이들에게 가해졌을까? 간단히 말해서, 그러한 삶이 누구를 위협하는가? 어쩌면 그들이 악을 혼란케 하고 심지어 두렵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엄밀히 말해 그들은 아주 취약하지만 하느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느님의 불로 불타오르기에 영적으로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힘없고 겸손하며, 세상의 죄와 아픔과 병고를 짊어지고, 그 대신 위로와 치유와 용서와 구원을 베푸는 하느님의 어린양과 아주 비슷합니다. 악을 두렵게 하는 하느님이 거하시는 나약함이 있습니다. 악은 권력, 강함, 성공, 승리, 명예 혹은 마음의 완고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악에게는 익숙한 영역이자 악을 키우는 자양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은 겸손, 용서, 사랑에 찬 승복, 열정적인 자기 비허, 사랑에 순명하는 자세 앞에서는 흔들리고 혼란스러워하며 좌절합니다. 그리스도께 바로 그렇게 살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사랑이신 분이 부드러우나 넘치는 힘을 드러내며, 증오와 폭력의 모든 화살을 받아내고 자비와 용서와 온유한 사랑을 회복한 바로 그 절정의 시간까지. 그 앞에서 악은 아무런 무기도 없이 미쳐버립니다.

2018년 4월 부활 주일에, 저는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한 수녀님과 함께 여러 교파로 이루어진 여성 공동체를 방문하였습니다. 그 공동체는 불우한 계층의 장애 어린이들을 위한 작은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프로젝트는 2021년 8월 탈레반이 카불에 들어오면서 중단되었습니다. 그 당시 소속 공동체와 국적이 다른 두 수녀님과 함께 부활절을 기념하러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유일한 가톨릭 성당으로 갔습니다. 그 성당은 이탈리아 대사관에 있는 성당으로, 아프가니스탄 독립사목구(*Missio sui Iuris*)를 책임지고 있는 마르나마 수도회 소속 교회 장상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있던 교외에서 대사관에 가기 위해 우리는 택시를 타고 도시를 가로질러 갔습니다. 대사관 주변에는 당연히 무장한 군인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곳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군인이든 외국 군인이든 그 즈음에는 수녀들을 알고 있었기에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 아무런 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대사관에 도착해서 우리는 근처 나토 주둔지에서 온 몇몇 군인을 만났습니다. 그들 역시 미사에 참여하러 왔습니다. 나토 주둔지는 대사관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은 몇 백 미터를 건너서 오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저는 군인들이 나아오는 방식과 수녀들 사이에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주목하고 마음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복장부터 차이가 났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하며 위장복에 방탄조끼에 헬멧과 얼굴 가리개를 쓰고 커다란 부츠와 벨트 그리고 어깨에 맨 기관총 등 그들에게 부과된 규칙에 따라 무장한 채로 걸어오는

³² https://parma.repubblica.it/cronaca/2014/09/07/news/du_e_missionarie_saveriane_uccise_in_burundi-95229424/.

³³ <https://www.focusonafrika.info/burundi-sette-anni-fa-leccidio-di-tre-suore-italiane-non-dimentichiamo/>.

나토 군인들. 이들 장비를 모두 벗고 좀 더 가볍게 성당에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한참 걸렸습니다. 가까이에는 수녀들이 있었습니다. 아름답고도 나약한 여성들. 부드러운 아프가니스탄 천으로 된 소박한 복장에 이슬람식 가벼운 베일을 쓰고 목에 건 십자가상은 가벼운 복장 아래에서 보일 듯 말 듯 시샘하듯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사울이 전장에서 보호 용으로 준 갑옷을 벗어 버리고 맨 몸으로 자유롭게 단지 돌팔매만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던 다윗이 생각났습니다. 그런 다윗에 반해 골리앗은 무장한 채 청동 헬멧을 쓰고 있는 거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무기가 아니라 하느님께 신뢰를 두었습니다(사무엘 상 17:1-54 참조). 나토 장교가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하면서도 겸손하고 헌신적인 이들 여성은 우리 남녀 군인들 모두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이들 주민들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축성된 남녀가 쓴 이러한 “존재 아이콘”을 관찰할 때 내면에서 어떠한 움직임이 있습니까?

축성생활이 언제나 용서와 보상과 형제자매에 유대 건설과 평화와 신뢰와 친교의 겸손한 예언적이 될 수 있게 하소서. 축성생활이 파스카 신비와 하느님 마음에 뿌리내리고 있기에, 하느님의 숨결, 하느님의 부드러운 빛, 하느님의 속삭임, 하느님의 향기, 하느님의 참된 맛을 한밤에도 인식할 수 있도록 버리고 열린 감을 지닌 파수꾼이 되어 하느님을 환영하고 하느님을 가리키며 선포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희망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수녀님들, 이 총회가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사이에, 또 우리 공동체와 우리가 하는 사도직과 봉사, 시노드 정신을 사는 선교하는 교회 안에서 성장 과정을 육성하는 공간이 되게 하시어, 건강한 네트워크, 깊은 유대, 생명과 보살핌과 상호 보호의 과정을 강화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시노드 최종 문서와 관련 문서, 교황 회칙과 권고와 훈령 등은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번역된 문헌을 사용했습니다.